루마니아 선교편지

제 54 호 2017. 11. 01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며 어떤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넉넉히 소망 가운데 기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지 소식 전해 올립니다.

♣ 한국에서와 루마니아 복귀 후

* 한국에서의 안식월이 마치 끊임없는 믿음의 전쟁을 치루는 것 같아 버겁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뜻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으려 애썼고, 삼성 병원 6인실에서 만난 췌장암 환자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은 그래도 축복 받은 사람 이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부끄럽기도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연약함을 다뤄주셔서,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루마니아로 복귀 하자마자 연 이어 방문 한 신실한 두 교회(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와 뉴욕의 CMC교회)의 선교 팀을 통해 그들이 밟고 기도 한 곳의 모든 교회와 아이들이 기쁨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마니아 집시와 결혼 한 크로아티아의 신실한 선교사와 두 아들, 가족 모두가 사역에 지쳐 웃음을 잃어 버렸는데 먼저 자신들이 기쁨을 회복 했노라며 한국팀이 최고라고 감사해 했고, 선교팀과 동행하며 그들의 말씨, 섬김의 몸짓,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지켜 본 교회 식구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 펠디와라 교회의 상황과 예배당 보수 공사

* 최소한의 보수만 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지하실에 물이 차고 습기가 예배당 위까지 스며드는 등, 낡은 건물이라 상하수도, 난방공사, 실내외 수리, 화장실 개축 등 생각보다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지만, 볼 때 마다 이곳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디누 전도사와 2명의 교회 성도들과 시간이 되는 청소년들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디누 전도사는 어릴 적부터 일이 몸에 배어 두 사람 몫을 해내는데 주일 날 간증을 합니다. 건물 주변 사방의 땅을 깊이 파 놓고 레미콘은 주문이 밀려 제 때 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멘트를 만들어 부을 기계도 없어 궂은 날씨에 힘들고 지쳐 예배당에 들어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지금 레미콘이 간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 11월 14일까지 마지막 잔금 만 유로를 지불해야 하고, 남은 보수 공사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2개월 이상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곳 브라쇼브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큰 추위가 오기 전에 어서 빨리 공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 하기에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평안함 속에서 기다려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은 전도와 감사주일로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 주일학교가 더욱 굳건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 루마니아 상황과 뜨르너베니 교회

* 현재 인구 2천 3백만 명 중에 약 4백만 명이 외국(주로 서유럽국가)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식 계약을 하고, 그 외에는 입. 출국을 반복하면서 몇 달씩 일을 해서 겨울 양식을 준비하거나 빚을 갚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힘든 시간들을 외국에서 보냅니다. 집시 중에서도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구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루마니아에서는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을 시킬 인부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펠디와라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회 성도들 중에도 서유럽 국가로 돈 벌러 가거나 이주하기도 합니다.
* 뜨르너베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파네 전도사와 함께 리더로 섬기는 형제들과 성도들이 자주 외국에 나가고 있는데, 힘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파네 전도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목양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주일학교와 지도자 기도 모임, 가족 소식

* 아라치 교회의 주일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따로 모임을 나누어 진행해 왔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교회 난방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합하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의 청소년들이 외국으로 돈 벌러 가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잘 자란 크리스티, 알리나와 마리아나 그리고 요안나를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세워 펠디와라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아라치 교회의 주일학교를 섬겨 나갈 예정입니다.
* 아리우슈드 교회의 주일학교가 1년이 넘어가면서 정착해 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시골 마을에 위치해있다 보니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는 적지만 순박합니다.

* 집시교회를 위한 교사 양성학교: 집시교회의 주일학교 시작과 또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사 양성학교를 계획하였으나 시간과 장소, 강사의 어려움으로 진행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준비하여 진행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배선교사가 없는 동안 지도자들 간에 교리적인 다름으로 언쟁이 있었고, 여름철 각 자의 바쁜 사역으로 참석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시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하며 기도의 동역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 배선교사도 루마니아에 돌아오자마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건강하여 감사하고, 췌장 인슐린종양 제거 후 당 수치도 정상입니다. 12월 검진 차 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일이 저희에게는 고마운 나라입니다. 수진이는 뇌졸증과 관련한 박사과정도 무료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면 국가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경진이는 한국에서도 바빠서 제대로 된 만남을 못 가졌는데 그래도 잘 감당하고 있고, 예진이도 9학년인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키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1. 브라쇼브 주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으로 일어나 어린 영혼들을 잘 세워가도록

2. 펠디와라 교회 예배당 잔금과 적절한 수리비용이 은혜로 속히 채워지도록

3. 가족의 영.육 강건함과 학업의 진보를 위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 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예금주:GMS배만주) LG 070 8625-7488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 (수진.경진.예진)선교사 올림